

재외동포의



2014 | 09

특집 | 2014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 연수

“공공외교 펼치고 모국 배운 소중한 시간”

화제 | 고려인 이주 150주년 자동차 랠리 러~한반도 대장정 완주

러시아, 북한 거쳐 부산서 마무리

한민족 공감 | 한·포르투갈 정상회담 개최

신재생에너지 · 관광 협력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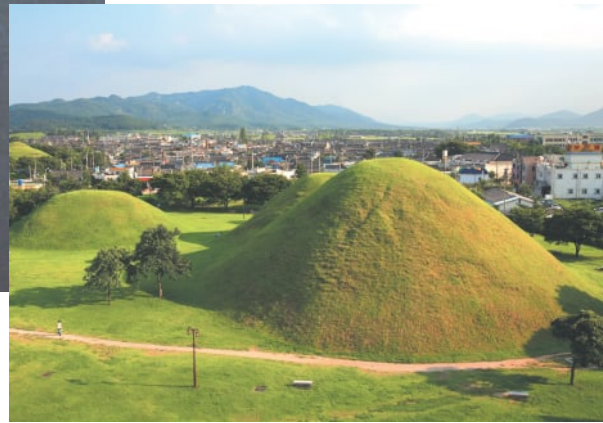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경주 노동동 식리총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 경주 노동동 고분군. 단일 원형고분으로서 가장 큰 봉황대를 비롯한 금령총, 식리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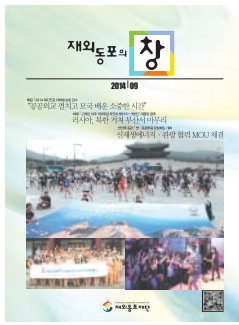
경주 노동동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신발 신고 저승 가다

신라인들은 살아생전의 부귀영화를 내세에서도 고스란히 누리기 위해 거대한 무덤 속에 갖가지 물건을 넣어두었다. 신라의 지배층은 죽는 순간에도 금관, 금 허리띠, 금 귀고리, 금 팔찌, 금을 입힌 신발 등으로 온몸을 휘감았다. 다양한 무늬들로 가득 찬 금동신발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발견됐다. 당시 금관총이 발견됨에 따라 신라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 조사된 무덤이 노동동 126호분이었다. 봉분은 거의 파괴됐지만, 동서 방향으로 놓인 목관의 머리 위쪽에 유물 부장용 상자가 있었다.

목관 내에서 관모, 금 귀고리, 옥 목걸이, 은 허리띠, 금은 장식대도 등이 출토됐고, 피장자의 발 근처에서 길이 32cm의 금동신발 1켤레가 출토됐다. 머리 위쪽 부장용 상자에는 다양한 금속 구름, 토기, 말갖춤, 큰칼, 철제 무기, 칠기류 등이 들어 있었다.

금관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화려한 무늬들로 뒤덮인 금동신발의 등장으로 이 126호 무덤의 이름은 식리총(飾履塚)이라고 붙여졌다. 식리(飾履)는 장례에 쓰는 장식용 신발이라는 뜻이다. 이 금동신발은 3장의 금동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앞판과 뒷판이 측면에서 결합되는 전형적인 신라 금동신발 제작방법과는 다른 백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좌우 측면이 앞과 뒤에서 결합되는 방법으로 제작됐고, 3장의 금동판은 갖가지 무늬들로 가득 차 있다.

기본적인 무늬 구성은 바깥쪽에 불꽃무늬, 안쪽에는 거북등무늬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다양한 동물과 새무늬 등을 배치했다. 계획적인 배치 구조와 섬세한 표현으로 보아 밀랍을 이용한 주조 방법으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세부적인 표현은 금동판에 직접 했을 것으로 보인다. 罽



Cover Story

7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연수' 참가 학생들이 독도 알리기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CONTENTS

재외동포의 창



- 02 한국의 열 신발 신고저승가다
- 04 특집 2014재외동포 대학생 초청연수
- 07 동포소식 미국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에 7번째 위안부 기림비 제막 의
- 10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9 대만 한인사_국교 단절 시련 딛고 한류 붐으로 거듭나다
- 12 화제 고려인 이주 150주년 자동차 랠리 라-한반도 대장정 완주
- 14 글로벌 코리아 미국 IA서자선 무대 꾸민 동포 피아니스트 써니 최
우크라이나 정수리학교 17년 역사 함께한 고려인 김류드밀라 교장
해의 한글학교에 한복 보내는 추민수 '예담' 대표
- 16 지구촌 통신원 아르헨티나서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개최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일반·간이·특별귀화
- 18 한민족 공감 한·포르투갈 정상회담 개최
- 19 동포의 창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20 동포문화 노스욕 구두수선방
- 22 OKF 뉴스 '공산국가' 쿠비에 한인 후손 문화원 개관 의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날말 맞추기
- 24 고향 소식 신비의 섬 울릉도
- 26 재단 공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2014 09 September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56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산HEP

▶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4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 연수 “공공외교 펼치고 모국 배운 소중한 시간”



▲ 7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연수' 참가 학생들이 독도 일리기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모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개최식을 시작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2014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26개국에서 227명의 재외동포 대학생이 참가했다. 개최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공공외교’라는 큰 주제 아래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모국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거치며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에 국내 대학생 100여 명과 함께 대구, 대전, 목포, 울산, 원주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지를 탐방하며 한국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또 농어촌 봉사활동, 탐방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펼치는 마을잔치, 산사에서 1박 2일간 심신을 가다듬는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글로벌 코리언, 대학생 공공외교포럼’도 펼쳤다.

독도 플래시몹·위안부 문제 사과 촉구

연수에 참가한 동포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 7월 29일 저녁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26개국 227명의 제외동포 대학생이 사물놀이 축하 공연에 박수를 치며 흥겨워하고 있다.

축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7월 30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손에 태극기와 거주국 국기를 들고 기수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 맞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플래시몹에 참가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곳"이라며 일본 정부의 영토 침략 야욕을 규탄했다. 쿠바에서 온 '애니깽' 후손인 제니퍼 백 우과르테(25) 학생은 "독도에는 주민도 살고 있고 역사적인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번 연수에서 배웠다"며 "이제 어디를 가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을 벌인 후 '제113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참가한 이휘정(18) 학생은 "반성은커녕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한·일 우호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평화 의지를 지닌 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거주국에서 공공외교를 펼친다는 자세로 일본 측 주장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윤석현(19) 학생은 "뉴스로만 접했던 수요집회에 참가해보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형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돌아가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집회에 참석한 뒤 동포 학생들은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해 전시관을 견학하며 구한말에서 일제

▶ 참가자들은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참석,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쳐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까지 조국의 근·현대 역사를 배웠다.

템플스테이 참여 “명상 통해 나를 돌아본 시간”

“고요한 사찰에서 수행자의 마음가짐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8월 2일부터 1박 2일의 템플스테이를 마친 후 “경건하게 나를 돌아보았다”며 색다른 체험을 만족스러워했다.

템플스테이는 공주 마곡사, 경주 불국사, 여주 신륵사, 성주 선석사, 장성 백양사 등 5곳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2일 오후 사찰에서 준비한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사찰 견학을 시작으로 명상·다도·단주팔찌 만들기·발우공양·예불 등을 체험하며 수행자의 삶을 엿보기도 하고, 불교 속에 녹아 있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느꼈다.

3일 오전 마곡사에서 탐돌이를 끝으로 체험을 마친 미국에서 온 김하준(21) 학생은 “스님이 전해준 은인자중(隱忍自重; 마음속에 감추어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행동함)이란 화두를 깊이 새겼다”며 “자연 속에 자리한 사찰이라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싱가포르의 오준협(19) 학생은 “템플스테이는 처음인데 종교를 떠나 우리 전통문화를 배운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도시에서만 살다 공기도 아주 맑고 모든 게 정(靜)적이라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흐뭇해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우리 전통 곳곳에 스며 있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고국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도 종교를 떠나 전통을 배운다는 자세로 참가해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일수록 기독교 신자가 많음에도 참가자들은 거부감 없이 생소한 불교문화를 통해 고국을 더욱 가깝게 이해했다며 기뻐했다. 미국에서 온 이정화(19) 학생은 “처음 불교문화를 체험했는데 덕분에

한국 역사를 깊이 알게 됐고 타 종교에 대한 포용력도 생겼다”며 “돌아가선 가족과 주변에도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우공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중국의 노설련(20) 학생은 “음식을 만든 이에게 감사하며 남김 없이 먹어보니 수행자의 근검한 삶에 고개가 숙여졌다”면서 “당장 오늘부터 물건을 아끼고 감사하는 맘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템플스테이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에 충청남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견학했다. ‘겨레의 집’ 앞에서 우금치 극단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재현한 ‘3·1 만세 운동’ 공연에 참여하고 ‘독도는 우리 땅’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이어서 천안의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찾아 위령탑에 헌화한 후 참배하면서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외동포의 넋을 기렸다. 국립 망향의 동산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다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등 12개국의 재외동포 1만 2천 명의 넋이 잠들어 있다.

대학생 초청 연수는 4일 서울 명동, 시청앞, 청계천 등을 둘러보는 ‘도시 탐방’에 이어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7박 8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 모국을 찾은 동포 대학생들이 8월 3일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좌선을 하며 명상하고 있다.





미국뉴저지주유니언시티에 7번째 위안부 기림비 제막



▲ 미국 주요 외신들이 뉴저지 주 유니언시티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취재하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으로 향하는 관문에 미국에서 7번째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다. 미국 뉴저지 주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플라자*에서는 8월 4일 '일본군 강제동원 군 위안부 기림비*'의 제막식이 거행됐다.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 브라이언 P. 스택 유니언시티 시장 등 시 관계자, 한인유권자단체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관계자와 동포들, 이번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유니언시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김지혜 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미국 AP통신, 중국 CCTV, 일본 NHK방송 등 다수의 외신도 이날 취재에 나섰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은 한국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고, 그들이 돈을 벌러

갔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옳은가"라며 "위안소는 사람을 잡는 도살장"이라고 비판했다.

뉴욕·뉴저지 주에서 4번째인 이번 기림비는 맨해튼을 잇는 '링컨터널' 근방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들어섰다. 날개를 펼친 나비 형상의 철제 조각인 이 비는 한인사회가 아닌 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세워진 기림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에는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 파크, 뉴욕 주 롱아일랜드,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등 2곳,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등에 기림비가 세워졌다.

한국계 입양인 펠르랭 "프랑스 정부의 떠오르는 인물"

한국계 입양인 출신의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씨가 문화대국 프랑스의 문화 행정을 책임지는 문화장관에 오르면서 프랑스 언론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8월 28일 "펠르랭이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에서 통상국무장관을 거쳐 이번에 문화장관을 맡게 됐다"면서 "나자트 발로 벨카셈 신임 교육장관과 더불어 2년 전부터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펠르랭 씨는 2012년 5월 올랑드가 대선에 당선된 후 초대 내각에서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에 발탁됐다. 기용 초기 동양계 여성에 대한 배려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후 2년 동안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개각에서 통상국무장관으로 재기용되고 이번에 문화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프랑스 경제지 르제코도 '펠르랭 문화장관에 깜짝 기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펠르랭이 새 내각에서 승진 발탁됐다고 평가했다. 르제코는 "문화계도 음악, 영화, TV 등이 디지털화되는 큰 전환기에 있으며 펠르랭은 디지털경제장관으로서 이전에 좋은 업적을 냈다"면서 큰 기대를 보였다.

1973년 출생 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된 펠르랭 장관은 상경계 그랑제콜인 에섹(ESSEC)과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해 프랑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 한국계 입양인 출신의 플뢰르 펠르랭 씨가 문화장관을 새로 맡았다.



미주 한인 250여 명 워싱턴DC서 정치력 신장 방향 논의



▲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에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가운데)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왼쪽, 강일출(오른쪽) 할머니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란 기치 아래 풀뿌리 한인 활동가들이 7월 3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운집했다. 특히 미국 의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한파 연방 상·하원의원 11명도 모습을 드러내 미주 한인들의 본격적인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이날 미주 각지에서 풀뿌리 운동을 펴고 있는 한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를 개최했다. 한인들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 121)이 통과된 지 7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미국 각지의 사회활동가, 한인단체 관계자,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미국의 친(親)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APAC(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처럼 한인들의 정치력을 신장하고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 방

향파 방법론 등을 논의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APAC을 만든 유대계 미국인들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며 "한인들도 이제 행동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10월 대구 한민족축전에 29개국 동포 330명 참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주일 동안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리는 제24회 세계한민족축전에 세계 29개국 330명의 재외동포가 참가한다.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는 8월 1일 세계한민족축전 홈페이지(www.wkf.or.kr)를 통해 참가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는 유럽·북미·중남미·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 37개국에서 835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축전 참가자는 일반 310명, 특별초청 20명으로 나뉜다. 일반 부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참가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뽑히지 못한 동포를 우선 선정했다. 특별초청자는 심의를 통해 선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이태은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선 태권도 사범 이태은 씨와 페루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을

지낸 전영기 씨 등 체육인, 독립운동가 후손인 최찬식 선생의 외손녀 전예브게니야 등이 눈에 띈다.

또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 최알라·반발렌틴·한야코프·김데니스·황이반·김베르타 등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처음 찾는다. 이 축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듬해 창설됐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재외동포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



▲ 2013년에 열린 세계한민족축전 환영연



인도네시아 교민, ‘풍물 알리기’에 구슬땀

일요일인 8월 17일 신명나는 풍물 소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강당을 가득 채웠다. 목 뒤에 파스까지 붙인 60대 초반의 한 단원은 흥겨운 장단에 맞춰 상모돌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땀으로 흥뻑 젖었다. 강당 한쪽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상모를 쓰고 소고를 든 채 ‘자반투집기’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10대부터 60대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들은 인도네시아 교민으로 구성된 자생 풍물패인 ‘한바패’와 또 다른 국악 동호회인 ‘국악사랑’ 단원들이다. 한바패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인 공동체 행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학·단체·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공연을 하고, JIKS 학생과 인도네시아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한인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풍물놀이를 지도하고 있다.

주말을 온전히 반납하고 모인 이들은 국립국악원에서 8월 4일부터 매일 8시간씩 3주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원 강사로부터 집중 강습을 받았다. 윗다리농악 이수자인 이 강사는 “해의 공연도 다니고 시할림에서도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강습을 해 보았는데, 한바패가 다른 지역의 교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단원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는 교민이거나 전업주부들로서 전문 공연단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8월 21일 배운 것을 총정리하는 공연을 하고 강습을 마무리했다.



▲ 인도네시아 교민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인 ‘한바패’

제10회 중국 연지·두만강 투자박람회 개최



▲ 중국 연지에서 열린 투자무역박람회 축하 공연

중국 연지(延吉)에서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최대의 국제 무역박람회가 열렸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지린성(吉林省) 상무청, 지린성 무역추진위원회는 8월 28일 연지국제컨벤션·예술센터에서 화려한 축하 공연과 함께 ‘2014 제10회 중국 연지·두만강 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개최했다.

31일까지 열린 박람회에는 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온 기업인·바이어·관람객 등 총 8천 명이 찾았으며, 이들 나라에서 온 300여 개 업체들은 치열한 상품 마케팅전을 펼쳤다. 정보통신, 웰빙식품, 에너지, 건축자재, 관광, 물류 제품들이 박람회장 안팎에 마련된 400여 개 전시·상담 부스를 통해 소개됐다.

주최 측은 올해 박람회 주제로 개발·협력·상생·발전 을 내걸고 연변의 경제적 투자 가치를 알려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박람회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재외동

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주요 관계자 등도 참가했다.

행사장에서는 ‘한·중 벤처포럼 및 IT포럼’이 열려 두 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신제품 등이 소개됐다. 올해 박람회는 월드옥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한국 경제·무역단체들이 특별 후원했다. **서**



국교 단절 시련 딛고 한류붐으로 거듭나다 대만 한인사



대만에 한국인이 최초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23년경으로 독립운동가 수 명과 7, 8명의 선원이 상륙했다. 1924년 이후 해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인삼 판매상 등이 중국 대륙을 거쳐 대만에 오기도 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에 따라 가오슝이 남양 진출을 위한 일본 해군의 기지가 됐으며 강제 징용으로 전쟁물자 운반선의 선원, 노동자, 기술자, 학도병, 군속 등 1만 5천 명에 이르는 한국인이 체류하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국내에 연고가 있거나 다소 재산을 가진 한인들은 차차 귀국했다. 그러나 국내에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잔류하게 됐다. 시대 상황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민 1세대는 2세 교육에 열성적이었고 2세대들은 대부분 일류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나 대만은 배타적이어서 외국인을 잘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2세의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후 무역, 상업, 유학 등의 이유로 대만과 관계를 맺고 정착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민 2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대만의 고속도로 공사를 맡은 극동건설과 함께 파견 나왔다가 잔류한 사람, 태권도 사범 등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여성이 대만으로 다수 건너왔다. 유학생 또는 화교와 결혼해 대만에 건너온 경우도 많다.

대만의 한인들은 스스로를 한교(韓僑)라고 부른다. 한인들은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 대만성(臺灣省) 한교협회를 결성해 교민사회의 구심점을 이뤘다. 이후 교민단체가 양분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1989년 8월 중화민국 한교협회가 재정립해 출범했으며, 1992년 한·중 단교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교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교민사회를 대표하던 한교협회는 회장을 재신임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2011년 대만 정부가 정부 등록단체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후 한인회가 재건돼 동포의 권익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4

1. 1993년 11월 주 대만 한국대표부 명관을 걸고 있는 한철수 대표와 주 중국 한인협회 김삼옥 회장(오른쪽) **2.** 한국과 대만 양국 국교 단절로 92년 9월 중단됐던 타이베이 노선 정기편 운항이 2004년 12월 재개돼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3.** 1999년 9월 대만 지진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친 119 국제 구조대 **4.** 배우 김수현이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5.** 1990년 대만에 진출해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황희재 씨. **6.** 한·대만 민간 교류단체인 대만 지한(知韓)문화협회 주최로 2013년 7월 6일 오후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대만 언론 문제 세미나 **7.** 1974년 10월 대만 거주 동포 학생들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아픈 역사 딛고 한류 붐으로 양국 관계 재건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한국과 대만의 외교관계가 중단된 것은 1992년 8월 23일 한·중 수교가 이뤄지기 하루 전날이다. 대만은 항공기 운항 중단, 한국산 과일 수입 거부, 자동차 수출 쿠틀 취소 등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대만 내에선 한국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엄청난 반한 감정이 일기도 했다.

한국과 대만은 단교 1년여 뒤인 1993년 11월과 1994년 1월 각각 대표부를 상호 설치해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노력을 해왔다. 단교 13년 만인 2005년 3월에는 국적 항공사들의 정기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다.

1999년 9·21 대만 대지진 때 한국 119 구조대의 활약은 양국 화해에 한몫을 했다. 당시 아파트 현장에서 3m 깊이 콘크리트 터미에 묻혀 있던 6세 대만 소년이 지진 발생 90여 시간 만에 한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한류가 양국 관계 개선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 주요 TV와 신문, 잡지 등에선 한류 스타의 근황을 잇달아 보도하고 TV 방송사들은 고정적으로 한류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대만에서 드라마 전문 채널 E!TV를 통해 방영 중인 '기황후'는 7월 30일 시청률 4.40%를 기록하며 대만에서 올해 방송된 해외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대만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올해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서는 6위로, 한류 드라마 가운데 2005년 '대장금' 이래 최고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을 반영하듯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타이베이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불과하던 한국어 학원이 최근에는 수십 개로 급증했다.

1990년 대만에서 섬유무역업체인 유허국제유한공사를 창업해 현재 연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황희재 씨는 "최근 한국과 대만은 상호 5대 교역국의 위치로 발전했고, 2004년 민간항공협정이 체결되면서 상호 방문 관광객 수도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상사 수도 단교 때보다 5배 이상 많아졌다"면서 "현재 대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김하지 않고, 한국과 여러 각도에서 조화로운 상생을 도모하려고 많은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4천 명으로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5



6



7



▲ 자동차 랠리에 참가한 고려인 동포들이 입경 후 환영 행사에서 꽃을 흔들고 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자동차 랠리 러~한반도 대장정 완주 러시아, 북한 거쳐 부산서 마무리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온 '고려인 이주 150주년 국제 오토 랠리' 참가단이 8월 19일 부산에 도착하며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고려인 35명과 한국에서 합류한 '국민 랠리 참가단' 50여 명은 이날 오후 '한·러 우정의 밤' 행사가 마련된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우라'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어)를 외치며 1만 5천km에 걸친 대장정을 마친 감격을 표현했다.

김에르네스트(54) 국제 오토랠리 조직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뜨겁게 마중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 랠리가 가능하도록 해주신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듯 남과 북이 자주 만나기를 기원한다"면

서 "우리가 온 이 길로 남측이 북으로 향하고, 북측이 남으로 오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염원했다.

이에 대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랠리는 한반도를 종주한 최초의 자동차 랠리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슴 뜨거운 동포들로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한·러 우정의 밤'에서는 행사 내내 랠리 팀의 성공적인 대장정을 축하하는 '우라'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다.

남과 북을 잇는 대장정 펼쳐며 한반도 통일 기원

7월 7일 랠리 팀 출발에 앞서 전(준)러시아고려인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모스크바 남쪽 '롯데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축하 행사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남북한 외교관들이 함께 만나 대



▲ 자동차 랠리 팀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로 입장했다.
 ▲ 자동차 랠리에 참가한 고려인 동포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화를 나누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남북한 외교관들이 차례로 축하 연설을 하고 뒤이어 열린 연회에 선 한 테이블에 둘러서서 다과를

나누며 환담도 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러시아 측에서 이고리 슬류냐예프 지역개발부 장관(15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장)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외무부 이주국 부국장, 조 바실리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 한국 측에서 이석배 주러 대사관 공사, 북한 측에서 강성호 주러 대사관 공사참사 등이 참석했다. 고려인 동포들과 한국 교민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축하 행사에 뒤이어 랠리 팀에 속한 23명의 고려인이 7대의 러시아제 지프 자동차 등에 나눠 타고 행사장을 떠났다. 슬류냐예프 장관이 깃발을 들어 올려 출발 신호를 보내자 자동차 행렬이 힘차게 출발했다.

랄리 팀은 러시아 내 주요 도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등의 노선을 따라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경로를 거슬러 달린 뒤 8월 8일 러시아 극동 국경 지역에서 북한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10일 백두산에서 '백두~한라 자동차 행진 출정식'에 참석했고 양강도 혜산, 함경남도 함흥, 강원도 원산 등을 방

문한 뒤 14일 평양에 도착했다. 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달리는 동안 평양 시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 꽃다발을 들고 도로변에 나와 이들을 환영했다.

이들은 16일 '분단 69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랠리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남으로 넘어왔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경 환영 행사에 나선 환영단과 취재진 앞에 선 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고려인 동포 자동차 대장정 단장 김에르네스트 씨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대장정 팀을 대표해 발언한 조바실리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북한을 떠날 때 주민들이 조국 통일을 외치며 우리를 환송했다"며 "우리가 대장정을 한 것은 스포츠나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장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랄리 팀은 이후 서울로 이동해 서울시 주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안산시 화랑유원지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대표단을 구성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도 참석했다.

19일 '서울~부산 국민랄리'에 나선 오토랄리 참가단은 오전 서울 남산의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출정식을 연 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거쳐 오후에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한 달 반을 넘어, 무려 1만 5천km를 내달렸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김**

미국 LA서 자선 무대 꾸민 동포 피아니스트 씨니 최 백혈병 환자에게 치유 음악 선사



▲ LA서 자선 무대 꾸민 동포 피아니스트 씨니 최

캐나다에서 컨템퍼러리 피아니스트로 활약하는 씨니 최(27·한국명 최선근) 씨는 8월 15일 미국 LA의 월셔이벨 극장에서 가수 장혜진 씨와 함께 아시아인 골수 기증협회(A3M) 후원 콘서트 '기적'에 출연해 치유 음악을 청중에게 선사했다. 최 씨는 무대에서 치유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자작곡을 2곡 연주하고 나서 가수 장혜진 씨와 함께 그의 대표곡 '1994년 어느 늦은 밤'을 협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 씨는 "백혈병 환자를 돕자는 취지라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달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음악으로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12살 때 가족이민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최 씨는 토론토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학업 중간중간 레슨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최고 클래식 과정인 RCM(Royal Conservatory of Music)을 이수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우승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닌 실력파다.

"4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운 이래 한순간도 건반에서 손을 떼는 적이 없었기에 진로 선택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연주 봉사를 해온 덕분에 음악을 통해 위안을 주는 것이 아주 좋았고요. 피아니스트로서의 삶은 마치 제게 숙명 같아요."

캐나다를 기반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800여 회에 이르는 연주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온 그는 지난해 첫 개인 음반 '클로저(Closer)'를 발매했다. 이 가운데 대표곡 '좋아요(Like)' 등의 유튜브 조회 수는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다.

"정통 클래식 연주와는 다른 감동을 전하고 싶어 1집 앨범 9곡 모두 자작곡으로 채웠습니다. 음악을 통해 가족관계, 나아가 인간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나누는 삶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기에 제 음악을 듣기 원하는 청중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수리학교 17년 역사 함께한 고려인 김류드밀라 교장 고려인 모두의 자부심 키운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은 3만 명에 불과한 소수민족이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식 학교가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국의 후원이 고려인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에 자리 잡은 정수리학교의 김류드밀라(62·여) 교장은 8월 12일 "우리말과 문화가 전승되는 한 고려인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서 "사명감 하나로 시작했는데 모국의 도움으로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며 고



▲ 우크라이나 정수리학교 김류드밀라 교장

마워했다. 그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 경기도 용인의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에 참가했다.

우크라이나의 초중고 교육은 쉬콜라(1~11학년)라는 형태로 한 학교에서 다 배운다. '181번 학교'로도 불리는 정수리학교는 현지 고려인협회와 김 교장의 언니인 고려인 김릴라안토노브나 시의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98년 개교했다.

이 학교의 재학생은 230명. 이 가운데 고려인 학생은 많을 때는 30명을 넘기도 했으나 최근 부쩍 줄어 10명 남짓이다. 고려인이 많이 사는 키예프나 크림반도에서 오는 유학생이 줄어섰다.

김 교장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안해져 학부모들이 장거리 통학이나 기숙사 유학을 보내기 꺼리는 상황"이라며 "고려인 학생은 줄었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인 학생은 늘고 있다"고 소


개했다. 김 교장은 한국어 보급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한글날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 교육부로부터 모범학교로 지정돼 메달과 표창장을 받았다.

해외 한글학교에 한복 보내는 주민수 '예담' 대표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에 도움

전 세계 한글학교에 한복을 9년째 지원하며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을 돕는 기업인이 있다. 주인공은 아동 한복 분야 업계 1위인 '예담'의 주민수(47·남) 대표. 그는 2006년부터 매년 200여 벌씩, 지금까지 1천200여 벌의 한복을 세계 곳곳의 한글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추 대표는 "독일 유학 시절 본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다"며 "한글학교에서 명절 세배, 부채춤, 꼭두각시춤 등 전통문화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데 꼭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06년 고정미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국학교 교장의 한복 후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후원을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20여 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10여 벌의 한복을 보내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외동포재단의 스테디코리안 사이트 내 교사 게시판인 'NOW 한글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어과가 개설된 현지 공립학교와 한인 입양인 학교 등에도 한복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에게 한복을 한 벌씩 선물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의 보육원 190여 곳을 돌며 실태 조사를 한 후 2천여 벌의 한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동해가 고향인 그는 건국대학교 독문과 졸업 후 어머니가 세운 한복가게를 확장해 110억 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한복 전문 기업으로 일궈다. 아동 한복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생활 한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가는 그의 신조는 '나눔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이다. 



▲ 해외 한글학교에 한복 보내는 주민수 '예담' 대표



▲ 성황을 이룬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아르헨티나서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 개최 중남미 라틴 한류 물결 재확인

김재순 | 연합뉴스 상파울루 특파원

중남미 지역에서 한류 확산을 이끄는 '중남미 케이팝(K-Pop)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8월 2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의 코빅스 문화센터에서 열린 경연대회 본선은 한류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다.

공연장에는 중남미 각국에서 온 한류 팬과 한인 동포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2012년 미스 아르헨티나인 바르바라 사베드라도 '중남미 케이팝 명예홍보대사'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아르헨티나 최대 일간지 클라린(Clarin)을 비롯한 현지 주요 언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경연대회 개최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남미 지역에서 케이팝이 한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중남미 7개국 13개 팀 43명이 참가한 이번 경연대회 본선은 댄스와 노래 부문으로 나뉘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부문별 우승팀에는 상금과 함께 삼성전자 아르헨티나 법인이 제공하는 갤럭시탭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콜롬비아의 8인조 그룹 '스트롱거(StrongGer)'와 역시 콜롬비아의 4인조 그룹 '파워 어레인저스(Power Arrangers)'가 댄스와 노래 부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경연대회를 지켜본 한병길 아르헨티나 주재 대사는 "케이팝을 통해 양국이 갈수록 소통과 교류

를 확대하고 있는 걸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남미 케이팝 경연대회는 지난 2010년에 시작돼 올해로 5회째 이어졌다. 경연대회는 케이팝을 앞세워 중남미에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서 올해 행사는 삼성전자 아르헨티나 법인파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문화부에서 후원했다.

경연대회 예선에는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나마,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멕시코 등 중남미 15개국에서 276개 팀 730명이 참가했다. 2013년 대회 예선(182개 팀)과 비교하면 참가 팀이 배 이상 늘어 한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경연대회에 앞서 관람객들이 우리의 전통 의상과 음악을 체험하는 한국 문화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교황에게 보내는 메시지 코너에는 관람객들이 앞다퉈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중남미 한국문화원의 이종률 원장은 "경연대회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남미 각국의 케이팝 애호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인정받고 있어 중남미 지역에서 '라틴 한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순**

재외동포의 일반·간이·특별귀화 거주 기간 갖추면 국적 취득 가능



▲ 8월 14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국외 영주권 병사들이 '파이팅' 을 외치고 있다.

한 국 국적을 얻기 위한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이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해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한 성년으로서 자신의 자선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귀화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재정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제출해야 한다. 귀화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국 정부 발행의 공문서가 필요하다.

간이귀화와 특별귀화

3년 이상 거주자의 간이귀화는 일반적인 요건은 일반 귀화자와 같다. 추가 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성년이었던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이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이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당시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 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 국

민이었던 사람, 부 또는 모가 사망 당시에는 외국 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등을 말한다.

결혼에 의한 간이귀화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신청한 외국 국적 동포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 동포 1, 2세 배우자의 간이귀화에 해당돼 그 외국 국적 동포와 동반해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동반 신청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다.

국적 회복 신청자의 배우자, 1949년 10월 1일 이후 중국에서 출생한 동포 2세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등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미성년 양자, 귀화 허가자의 자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Q 일본 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해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려고 한다. 귀국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 절차를 밟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

A 현행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다. 단 위 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됐으므로 시행일 이후의 출생자에게만 적용된다.



1. 한·포르투갈 정상회담 2. 한·포르투갈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아니발 카마루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한·포르투갈 정상회담 개최 신재생에너지·관광 협력 MOU 체결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청와대에서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아니발 카마루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하고 양국 관심사를 논의했다. 포르투갈 정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대통령이 포르투갈 정상과 회담을 한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신재생에너지, 항공, 정보통신기술, 해운과 항만, 관광 등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포어권' 국가 모임인 '포어 사용자 공동체(CPLP)' 본부가 위치한 나라인 만큼 CPLP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포르투갈이 세계의 포르투갈어 사용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합작 투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동 진출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포어권 국가들 간에 다양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한·포르투갈 양국 간 호혜적 협력뿐만 아

니라 포어권 국가들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회담에서 농업, 항공, ICT(정보통신기술), 해운, 항만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양국이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바 대통령은 포어권 공동 진출과 관련, "아프리카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5개국 있다"며 "제3세계에 한국과 포르투갈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춰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고, 특히 포르투갈은 제3세계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협력 ▲관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워킹그룹 구성과 전문가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이 분야 진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관광 당국 간 협력을 장려하고 관광 투자를 촉진하며 인력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 관광 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한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 샌프란시스코서 개최 과학기술의 역할과 미래 모색



▲ 개막식서 축하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차관
◀ 개막식에 참석한 한인 과학기술인들

한 국과 미국의 정상급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4 한미 한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UKC)'가 8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됐다. 1999년에 시작해 올해 16회째를 맞은 UKC-2014는 9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함께 앞으로(Forward Together)'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조명해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한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현지 과학기술인 1천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LG전자·포스코·CJ제일제당·롯데케미칼·SK하이닉스·한화케미칼 등 대기업, 20여 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기초과학, 산업기술, 첨단기술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에서는 분야별 최신 성과가 소개되고 1천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 8개 세션의 전문 분야별로 열린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민 1.5세대 및 2세 참가자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청년 세대 전문가 포럼', 해외 신진 과학자 발굴·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올트라 프로그램', '여성과학자 포럼', '에너지 포럼' 등도 함께 열렸다. 이들의 친목을 위한 소셜네트워킹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다.

각 분야 명사들의 기조강연도 줄을 이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에임스연구소 최고책임자 사이먼 피트 워든, 구글 무선 기술 분야 총책임자 프레스턴 마셜, 여성 역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론다 슈빙어 박사, 바이오 전문가 캘리포니아대학(UC) 데이비스 유두영 교수, 보잉 시니어 테크니컬 이사 김재훈 박사 등 명사들이 강연에 나섰다. UC 버클리 김성호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재성 교수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차관은 개막식 축하 메시지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재미 한인과학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외형적 기틀 마련에 집중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UKC를 통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치하하고, 유공자에게 미래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석준 차관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청년과 벤처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후원한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포스코 등 다수의 한국 기업과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은 과학기술 두뇌 유치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마련했으며, 연구 프로젝트 요청서도 접수해 심사 후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했다. **김**

OKF NEWS



▲ 쿠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을 위한 문화원이 8월 10일 수도 아바나의 신시가지에 건립됐다. 이 회관은 1921년 한인 1세대 270명이 멕시코에서 재이주해 정착한 뒤 93년 만에 처음 세워졌다.

‘공산국가’ 쿠바에 한인 후손문화원 개관

‘공산권 국가’ 쿠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을 위한 문화원이 처음으로 세워졌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8월 10일 미수교국 쿠바에서 열린 ‘한인후손문화원’(현지 명칭 호세 마르티 문화원 한국쿠바문화클럽) 개원식에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쿠바 한인후손회 회원 150여 명은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신시가지에 들어선 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 회관은 1921년 한인 1세대 270명이 멕시코에서 재이주해 정착한 뒤 93년 만에 처음 세워지는 것이다.

쿠바의 한인 이민사는 1905년 멕시코 ‘해니깁’ 농장에 일하러 건너간 한인 가운데 300여 명이 1921년 쿠바 사탕수수농장에 취업하며 시작됐다.

쿠바 한인후손문화원 건립은 93년 쿠바 이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중미·카리브지역협의회(회장 오병문)가 주도했고, 지역 13개국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코트라 아바나무역관의 지원,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의 협조로 이뤄졌다.

대지 537㎡(162평)·연면적 293㎡(89평)에 들어선 문화원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과 이민 역사 유물 전시관, 한글학교 교실 등의 공간이 마련됐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 지역의 자문위원들은 6천500여만 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건립 예산을 모았다.

한·쿠바 문화클럽은 우선 쿠바 내 1천100여 명의 한인 후손

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쿠바 간 문화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쿠바 현지인 및 한인 후손들을 위한 한글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에라스모 데 헤수스 리스카노 로페스 호세마르티 문화원 수석부원장(차관급)은 “한·쿠바 문화클럽은 양국민의 친선과 문화 교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페스 부원장은 한국도 방문한 적 있는 쿠바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양국 민간 문화 등의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조규형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쿠바 내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이날 한인 후손들에게 라면 26박스, 고추장·된장 110통, 초코파이 6박스, 망갈 1천 200컬레, 신발 200컬레 등을 전달했다.

조 이사장은 이밖에도 8월 7일 멕시코를 시작으로 쿠바·콜롬비아·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중남미 5개국을 돌며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했다. 12일에는 아르헨티나 동포사회가 추진 중인 K-Town(한인타운) 조성 현장도 돌아보았다.

동포재단,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 4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음식’, ‘교통’, ‘역사와 통일’, ‘전통과 현대’ 등 매주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익혔다.

재단은 고려인 교사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소 전·후 한국어 능력평가를 시행해 실력 향상 정도를 평가했다.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연수 기간 한국 역사·문화 특강, 독도박물관·통일교육원 견학 등을 실시했다.

재단은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지난 150년간 모국의 말과 역사, 전통을 이어온 고려인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차



▲ 재외동포재단이 발행한 조사연구총서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 방안' 과 '중국의 화교 정책과 업무 체계'



▲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CIS 지역 한국어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세대 민족 교육자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연수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5주간 한국어 교수법을 배우고 문화를 체험한 고려인 교사들이 돌아가서 동포사회에 한국어와 문화를 올바르게 보급하는 교육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재단은 한국어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포재단 '외국 우수 동포정책' 번역서 첫 발간

재외동포재단은 외국의 재외동포정책 우수 사업을 연구·분석한 해외 학술도서 2권을 번역해 출간했다. 재단이 해외 우수 도서를 번역해 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총서' 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두 도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 방안' 과 '중국의 화교 정책과 업무 체계' 다.

'모국과 거주국의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를 위한 지침서' 라는 부제가 달린 '국가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 방안' 은 60여 개 나라의 재외동포 지원 및 육성 방안, 재외동포와 모국 간 상호작용, 재외동포 전담기구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와 미국의 이민정책연구소(MPI)가 함께 펴냈다.

'중국의 화교 정책과 업무 체계' 는 중국 공산당 수립부터 최근까지 화교 정책 발전 과정과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두 책자를 국·내외 관련 기관과 재외동포 전문가에게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 연수' 첫 실시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지역별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규모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사 연수' 를 실시한다.



▲ 재외동포재단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미 니카라과와 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도 한글학교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첫 번째 맞춤형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륙별 한글학교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국어 교육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오지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한글학교 교사들은 이 같은 연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현지 한글학교에 파견해 순회 교육 연수에 나서기로 했고,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미 니카라과와 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도 한글학교에서 첫 번째 맞춤형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재단 관계자는 "남미에서는 매년 한글학교 협의회가 주최하는 교사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미에 있는 교사가 남미까지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문 강사가 한글학교를 찾아가 강의를 실시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내년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지역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사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

노스욕 구두 수선방

백복현 | 캐나다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선할 구두 굽처럼 허술한 한글 간판
구두, 가방 수서, 여의 복사
해진 신발을 끌고 찾아온
받침 글자 떨어져 나간 겨울
영 헤어살롱, 노스욕 피시방, 질러 노래방
노스욕 골목길 비좁아 가도
더 걸어야 할 구두 밀창의 꿈
벌어진 저녁의 뒤축 두드러가며
실밥 풀린 골목 한 모퉁이를 박음질한다
끈 떨어진 가방 거드랑이 부축하여
이 여사 어깨에 걸어준다
헤어드레서 미스 김의 자존심 주저앉은 굽도
접착제로 붙여 세운다
언젠가 열고 들어갈
버젓한 집 대문 열쇠 복사하여 둔다

오늘도 한글 입간판 흐드는 바람 소리
노스욕 골목길은 수유리 버스 정류장 앞으로 바뀐다
곰국, 생선국 냄새 함박눈 속에 스며든 골목길
군고구마 냄새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엄마 등에 업힌 두 살 철이 칭얼대는 포대기도
재워주던 구두 발소리
동생 모자에 달린 방울처럼
그날의 함박눈이 내리고
십구공탄 불에 젖은 기저귀 말리던 기억의 한 귀퉁이를
기워보는 노스욕 골목
다시 붙인 구두 밀창에서 아침이 떠오른다
부츠 목에 매달린 봄 햇살도
구두 수선방으로 따라 들어온다

* 노스욕 은 캐나다 토론토 북부의 한 언덕이다



바른 말 고운 말

느리다/늦다

여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시차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어떤 곳에는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느리다'고 쓰여 있었고, 또 어떤 곳에는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늦다'고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느리다'란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속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사람'이라든가 '일 처리가 느리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다'란 말은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이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할 시기가 됐는데도 말을 잘 못할 때는 '말이 느리다'고 하지 않고 '말이 늦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4시간 늦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흥청거리다

'흥청거리다'는 말은 '흥에 겨워서 마음껏 즐긴다'거나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이 흔해서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며 거들먹거리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흥청(興淸)'이란 말은 원래 '운평(運平)'에서 나온 말입니다. 운평이란 것은 조선 시대 연산군 때 있었던 기생 제도입니다.

여러 고을에 널리 모아 두었던 노래를 할 줄 알고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기생들 중에서 뽐혀 대궐로 들어온 기생을 '흥청'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흥청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이면 대단히 시끄럽고 요란했기 때문에 떠들썩한 잔치를 말할 때 '흥청거리다' 또는 '흥청댄다'고 했던 것입니다.

'흥청거리다' 외에도 '흥청흥청'이라든가 '흥청망청'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흥청망청'에서 뒤에 나오는 '망청'이라는 말은 별 뜻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쓴 대구(對句)입니다.

▶ 낱말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9월호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8월호 정답

미	아		황	무	지		지	명
	기	행			평	화		사
손	자		비	행	선		박	수
	기	행	문			날	씨	
		랑				고		
	사	채			이	기	심	
연	필		갈	고	리		봉	지
	귀		비			박	사	
우	정		탕	수	육			

오른쪽 방향 열쇠

-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
- 42.195km를 달리는 운동경기
- 엽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종이나 형겅에 싼 다음 나머지 부분을 먼지떨이처럼 여러 갈래로 늘어 발로 차고 노는 장난감. 발로 받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 땅 위의 표면이 복사 냉각으로 차가워지고, 그 위에서 수증기가 승화해 생긴다.
-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형겅이나 가죽 띠위로 만든 가방
- 불고에서 이르는 싸움을 일삼는 귀신. 팔부중의 하나로, 항상 제석천과 싸움을 벌인다.
- 구리·은·니켈 또는 이들의 합금 띠위로 만든, 동그랗게 생긴 모든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계나 설비 띠위가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장치의 작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함. 또는 그런 기계
- 콧구멍 안쪽에 있는 막. 타원형의 반투명한 막으로, 공기의 진동을 속귀 쪽으로 전달해 들을 수 있게 해 준다.
-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대한민국의 수도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 군의 우두머리로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무관
- 회사의 책임자. 회사 업무의 최고 집행자로서 회사 대표의 권한을 지닌다.
- 음성을 냄. 또는 그 음성
- 원수를 갚음
- 인사, 감사, 친애, 화해 따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 내어 잡는 일. 보통 오른손을 내밀어 잡는다.
- 소의 젖. 백색으로 지방,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영양가가 높다.
- 식품의 영양 가치
- 돌로 만든 비. 빛돌

아래쪽 방향 열쇠

- 축하의 뜻으로 별이는 큰 규모의 행사
- 종이를 접어서 만든 배
- 예수의 어머니
- 사람으로 말을 만들어 겨루는 경기. 두세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의 어깨에 팔을 걸쳐 말을 만들고, 거기에 한 사람이 올라타서 다른 말을 탄 사람과 겨루어 쓰러뜨리거나 모자를 빼앗는 놀이
- 예전에 '쳐녀'를 높여 이르던 말
-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을 막아 지킴
- 나이가 같은 또래인 사람
-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
- 깡도의 막다른 곳
- 땀을 닦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군인의 제복
- 오륜(五倫)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이른다.
-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에는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등이 있다.
- 밀가루를 반죽해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 스포츠타 놀이로서 물속을 헤엄치는 일

신비의섬 울릉도 투명한 바다 끼고 해안 산책로를 걷다



경 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화산섬인 울릉도에는 때 묻지 않은 바다와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다. 해안 산책로와 해안 도로를 따라 환상적인 경치가 쉽 없이 펼쳐진다. 해안가 바위에 파도가 부서지면 하얗다 못해 시리도록 푸르스름한 물 거품이 일어난다.

울릉도는 항공편이 없고 포항, 울진 후포항, 동해 묵호항, 강릉 등 동해안에서 배길로 3시간여를 가야 닿는다. 울릉도는 헤어나기도 힘들다. 한 해 100일 정도는 기상 악화로 배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울릉도에서 가장 멋진 해안 풍경을 보고 싶다면 도동항을 출발해 행남 등대를 거쳐 저동항 촛대바위에 이르는 길이 2.6km의 해안 산책로를 걸어야 한다. 산책로는 바다와 섬이 만나는 해안 갯바위 가장자리를 따라 오르내리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놓인 다리를 건너며 이슬이슬하게 이어진다.

1시간여 해안 산책로를 거닐다 왼쪽의 산길을 따라 오르면 아름답기 그대저 아름다운 군락지가 나타난다. 고요한 비탈 숲길을 올라 행남 등대 전망대에 서자 촛대바위 뒤로 저동항이 내려다보인다. 부속 섬인 죽도와 관음도도 내다보인다. 전망대 아래 바다는 속이 환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하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도로

울릉도에는 저동항 북쪽의 내수전에서 섬목까지의 동쪽 해안 4.4km를 제외한 39.8km의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놓여 있다. 관광객 대부분은 일반 버스나 관광버스에 올라 해안 도로 주변에 펼쳐지는 비경을 감상한다. 해안 절경은 도동항 서쪽의 사동항을 지나면서 시작된다. 도로 왼편으로 시원스런 옥빛 바다가



1. 해안가 바위에 파도가 부서지면 푸르스름한 물거품이 일어난다. 2. 나리분지는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이다. 3. 하늘을 보기 힘들 정도로 숲이 우거진 성인봉 등산로. 4.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5.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천부항. 6. 갈매기들이 노니는 해안가의 바다는 한없이 투명하다. 7. 독도박물관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기암절벽이 이어진다. 가두봉 터널을 통과한 뒤 동글동글 까만 몽돌이 깔린 통구미 해변을 지나면 해안가에 거북바위가 나타난다. 해님이 명소인 남양항 인근에서는 얼굴바위, 오리바위, 사자바위도 볼 수 있다.

학이 앉아 있는 형태의 바위가 있었다는 학포를 거치면 한국의 10대 비경 중 하나인 태하다. 태하는 해변의 움푹 파인 석벽에 붉은 황토가 있어 황토구미로 불렸는데, 조선 시대에는 이곳 황토를 곁에 진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구불구불한 향목령 고갯길을 넘으면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구인 현포항이 나타난다. 현포에서 5분 정도 달려 추산몽돌해변을 지나면 천부다. 천부에서 다시 죽암몽돌해변을 지나면 탄바위, 삼선암 등 바위들이 바다에서 불쑥 솟아난 풍경을 볼 수 있다.

해안 도로 끝에는 관음도가 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귀청을 울리는 다리를 건너면 산책로가 이어진다. 섬 곳곳에는 전망대도 마련돼 있다.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떠 있는 죽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으로는 삼선암이 자리하고 있다.

250만 년 전쯤 화산이 폭발해 형성된 울릉도는 자체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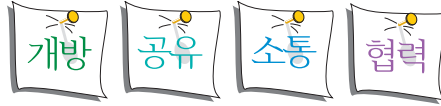


의 거대한 산이다.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평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원시림 빼곡한 봉우리들이 섬을 채우고 있다. 미륵산(905.1m), 형제봉(716.8m), 송곳산(610.9m), 일봉(538m) 등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중앙에는 최고봉인 성인봉이 솟아 있다.

성인봉을 향해 깊은 숲 속으로 들어서면 푸른 바다는 한 조각도 보이지 않고, 햇빛이 투과되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시간마저 멈춘 듯하다. 등산로가 끝나면 키 큰 나무들이 적당히 햇빛을 가려주는 숲의 터널이 이어진다.

도동 인쪽 도동약수 관광지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전망대에 오르면 동쪽 바다 너머 독도와 도동항 전경을 볼 수 있다. 케이블카 탑승장 바로 옆에는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이 있다. 齣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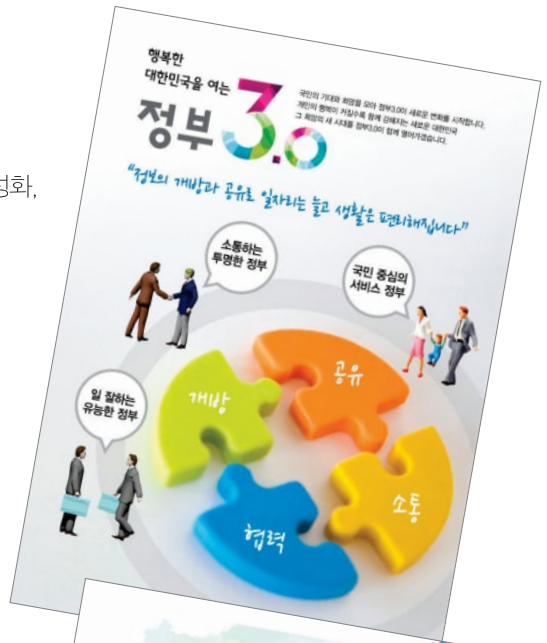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라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이 모저모를 글과 사진으로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wakar@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자랑스런 세계한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제8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및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2014. 10. 6(월) - 10. 9(목) /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주최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여행경보 **신호등**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해외체류자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해외여행예정자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해외체류자 : 즉시 대피, 철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 금지

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별여행경보(특별여행경보 2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